

LS산전, 태양광발전 일본시장 공략

국내기업 최초로 일본 JPEC인증 획득 ... 정부 보조금 혜택 기대

LS산전이 국내기업 가운데 최초로 일본 태양광발전보급확대센터(JPEC) 인증을 획득했다.

JPEC는 주택용 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정부 보조금을 관리하는 일본태양광발전협회 산하 조직으로 인증을 획득하면 보조금 혜택을 얻을 수 있다.

LS산전은 8월에 일본 사닉스와 태양광발전 시스템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시험성적서와 성능, 품질, 사업수행 능력을 평가받아 사닉스와 공동으로 인증을 따냈다.

LS산전 관계자는 “JPEC 인증은 일본시장 진입시 최대 걸림돌”이라며 “인증 획득으로 일본 태양광발전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2006년 태양광발전 보조금 제도를 폐지했으나 가정용 태양광발전 시장이 침체되자 2009년 1월 가정용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하면 kW당 7만엔(약 91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다시 도입했다.

한편, LS산전은 10월8일 천안공장에서 사닉스의 무네마사 신이치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사닉스 프로젝트 태양광 제품 출하식을 열고 일본에 설치할 태양광발전 시스템 양산에 들어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10/13>